

전남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불감' 여전

11곳 실태 점검 41건 적발
 화재 취약 자재 사용하고
 정원 위반·불법 용도변경
 감독기관 보강 권고도 외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드라이버트'(스티로폼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붙여 마감재) 건축외장재를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하는가 하면, 안전성 강화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사회에 허술한 안전 의식은

전남도는 10일 전남지역 6개 시·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 11곳(공공 9곳·민간 3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쓸 수 없는 건축자재인 드라이버트·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시설로 등록하는가 하면, 재정 형편을 들어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 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배상보험에 일부만 가입하는가 하면 불

법 용도변경·증축에 미인증 고 위험 수련 활동을 홍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 관리 분야의 경우 ▲실별 정원 기준 위반(8건) ▲유스호스텔 허가 지도·감독 미흡(1건) ▲부지 면적 등 중요사항 변경 부적정(1건) ▲필수 시설 불법 폐지(1건) ▲불법 칸막이벽 증설(2건) ▲건축 신고 미이행(1건)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1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또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화재 안전성 확보 개·보수 계획 미수립(4건) ▲자체 안전점검표 부실 작성(4건) ▲반복적 안전 위반사항 조치 미흡(1건) ▲수련 시설 배

상보험 가입 부적정(4건) 등 13건을 적발, 개선토록 요구했다.
 수련활동 분야에서는 인증 기준을 초과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등 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설 운영면에서도 자격·운영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항 등 9건을 적발해 조치토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은 사소한 것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안전 무시 관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안전 분야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 프린지 페스티벌 매주 토요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문화·예술의 장으로 만들었던 '아시아 프린지 페스티벌'이 지난 8일과 9일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을 펼쳤다. 9일 오후 금남로 5·18민주광장 분수대 옆 공연장에서 열린 중국 'ACROS' 팀이 경극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광주 인권상 후보자

5·18 기념재단 30일까지 공모

5·18 기념재단은 10일 "2020년 '광주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광주인권상 후보자 자격은 민주주의 발전, 인권증진 그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개인 또는 단체다. 후보자(단체)는 스스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단체에서 소속인사를 추천할 수 없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는 강화된 후보자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첫째 주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매년 5월 18일 5·18기념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미화 5만 불)과 상패가 주어지고, 수상자 기념 브론즈는 5·18기념재단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홀에 전시된다.
 후보자 추천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5·18기념재단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 광주인권상은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 정부 시절 이에 맞선 민중 운동가인 조안나 까리노(여·69)가 수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인권상 수상자는 강화된 후보자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첫째 주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매년 5월 18일 5·18기념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미화 5만 불)과 상패가 주어지고, 수상자 기념 브론즈는 5·18기념재단 5·18기념문화센터 리셉션홀에 전시된다.
 후보자 추천서 접수는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5·18기념재단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 광주인권상은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 정부 시절 이에 맞선 민중 운동가인 조안나 까리노(여·69)가 수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샤프, 8년만에 바뀐다

올해부터 다른 펜 제품
 "갑자기 왜" 수험생들 불만

오는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 응시생에게 지급되는 샤프펜슬이 바뀐다. 수능 샤프펜슬 제품이 바뀌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수능 응시생에게 지난해와 다른 제품의 샤프펜슬이 제공된다.
 수능 응시생에게 샤프펜슬이 지급된 것은 2006학년부터다. 2005학년도 수능 때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듬해 수능부터 응시생에게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에는 필기구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대신 샤프펜슬을 한 자루씩 지급했다.

이후 2011학년도 샤프펜슬 모델이 바뀌었으나, 샤프심이 잘 부러지는 단점이 나타나면서 2012학년도부터 또 다시 제품이 변경된 바 있다.
 한편 수능 샤프펜슬이 바뀐다는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불만

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손에 익도록 연습해왔던 샤프펜슬이 곧 수능을 앞두고 갑자기 바뀐다는 소식을 접한 데다, 바뀌는 제품명도 공개되지 않으면서이다. 수능 전에 미리 연습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정원 게시판에는 "수능 수험생들은 주변 환경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샤프펜슬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제품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샤프펜슬과 관련해 '보안 사항'이라며 "제품 종류가 알려질 경우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샤프펜슬은 매년 공개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면서 "일본업체에서 생산돼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 중 최저가인 제품이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교대 교수 채용 심사위원 2명 "담합 의혹 부당"

광주교육대 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일어 채용이 중단된 것과 관련, 일부 심사위원들이 "담합 의혹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대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 2명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정성평가에서 심사위원의 권한으로 규정 안에서 점수 차이를 주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진행된 3개 학과 교수채용 중 한 학과의 2차 전형을 중단했다.

논란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이 일부 지원자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반면, 다른 지원자들에게 한 자릿수 점수를 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반발이 나와 채용이 중단됐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논문을 배제하기 위해 점수 배정을 낮게 한 것"이라며 "심사위원 권한으로 점수를 배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수 공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유치장 입감된 피의자, 인권상담 받는다

경찰서 9곳 시범운영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상담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나 위반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와 피의자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상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파악되면 경찰청에 요구하게 된다.
 국가인권위 상담위원은 지난 3월부터 광주 광산서를 비롯한 서울 강남·종로, 경기 수원 남부·부천 원미, 강원 춘천, 대전 대덕, 대구 성서, 부산 동래 등 전국 9개

경찰서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차별 행위와 관련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유치인 면담제'도 이들 9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3	달뜨기	17:03
해질	17:30	달지기	05:24

쌀쌀한 가을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10/17	보성	구름많음	8/17
목포	구름많음	12/17	순천	구름많음	9/18
여수	구름많음	12/18	영광	구름많음	10/17
나주	구름많음	8/18	진도	구름많음	12/18
완도	구름많음	13/18	전주	비온뒤 갠	10/16
구례	구름많음	8/17	군산	비온뒤 갠	9/16
강진	구름많음	10/18	남원	비온뒤 갠	8/16
해남	구름많음	10/18	흑산도	구름많음	13/17
장성	구름많음	8/1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1.5~4.0
남부 먼바다	서~북서	2.0~4.0
남해 앞바다	서~북서	1.0~2.0
남해 먼바다(동)	서~북서	2.0~4.0
서부 먼바다(서)	서~북서	2.0~4.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34	01:08
	18:56	13:37
여수	02:03	08:22
	14:20	20:30

◇ 주간 날씨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18(월)
☁	☁	☁	☁	☁	☁	☁
8/19	8/17	7/9	2/13	6/18	9/16	8/14

멋대로 예산집행 지적 대법원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제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용·전용' 문제가 드러난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예산집행지침'을 연내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라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예산 문제가 불거진 뒤 별도 재무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4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는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등 총 4억7510만원이 무단 이용·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8개 법원이 업무추진비 총 5300여 만원을 토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했거나, 국외 파견 중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예산집행지침에 감사원 등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중 상당수를 담기로 했다. 대법원은 예산집행지침을 도입하는 한편, 회계감사수행하는 기구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말뉴스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예약문의 062-226-0011